

#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 보장 항목 추가에 기존 보장 금액 확대... 군민 경제적 부담 완화 자연재해·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임실군의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하여 2024년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

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험 대상자는 임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시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임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올해 추가된 화재·수술비 지원 등 총 22종의 보장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각 항목당 1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이다.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으로 농기계 사망사고 등 22건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과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이 많이 찾는 지역을 방문해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하는 등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소개해 많은 군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기울이고 있다.

심 민수수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 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 금액을 확대해 지난 1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군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 10일 정식 오픈

### 남원시-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로컬편집샵-남원종합상사를 6월 10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의 작은 기업들을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지난 3년간 사업 성과로써, 쇠락해가는 지방도시의 골목상권 살리는 일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종합상사는 남원 내 소규모 남원지역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 생산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기업 연합의 공동사업 브랜드명이자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중 하나로, 이는 작은 업체 간 공동홍보·공동판매·공동생산의 연합 경제 활동을 통해 규모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남원다움의 가치성을 높여 상품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오픈하는 상설매장 종합상사는 추진단에서 육성한 경제 액션그룹과 지역 소기업 42개소가 함께 시작하며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며, MZ 세대를 겨냥한 공간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남원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된 남원민의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로컬편집샵 개장이 방문객에게 남원시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마케팅 분야의 새롭고 참신한 시도가 될 것이며, 지역민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상품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를 통해 남원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순창군은 지난 6일 순창제일고 현충탑에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신정의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장 및 유족 대표 등 200여명이 참

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민철 시인의 '영원한 빛이여'라는 작품으로 순창제일고 3학년 이서

영 학생이 헌시를 낭독했으며, 제7733부대 3세대 소속 군인들의 조총발사로 식을 마무리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추념사에서 "우리군 800여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건립 추진, 보훈수당 인상 지급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발효 중균첨가제 '순창 프리미엄 황국3호' (사진=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제공)

# 프리미엄 황국3호로 양조 시장 도전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100% 순창산 햅쌀로 황국균 주원료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군수)이 발효주 시장과 곡물발효식품 시장을 겨냥한 발효 중균첨가제 '순창 프리미엄 황국 3호'를 출시했다.

현재 국내 양조산업에서는 주로 백국균(흰누룩곰팡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분 분해력이 뛰어난 유기산을 생성함으로써 술의 산도를 낮추는 역할을 맡아주는 효과가 있어 술 발효에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진흥원이 개발한 '순창 프리미엄 황국3호'는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노란누룩곰팡이)을 주원료로 하며, 이는 α-아밀라아제 효소 활성이 매우 뛰어나 전분 발효 능력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황국균은 전통적으로 장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순창 프리미엄 황국3호'는 술 발효에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청주와 사케 같은 고급주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

으며, 백국균에 비해 풍미가 뛰어난 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금 국내 막걸리 시장규모는 약 4,000억 원, 약주 시장규모는 약 900억 원에 달하나, 대부분의 막걸리는 백국균을 사용해 당화를 하기 때문에 맛과 풍미가 획일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순창 프리미엄 황국3호'의 경우 토종 황국균을 활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가진 막걸리 제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0% 순창산 햅쌀로 제조되는 황국 3호의 출시는 K-막걸리의 고급화와 프리미엄 제품 개발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전통주의 품위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이 제품은 국내 다양한 발효 관련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될 예정이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유통전문대리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주차요금 면제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 △남원시청 제2주차장 △남원시청 제1주차장 △시장4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점심시간 2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공영주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시간 미만 주차 무료운영 또한 지속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시장4가 주차장은 주말과 공휴일도 유료운영을 실시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시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 부과되고, 1일 최대요금은 6,000원이며 주말과 공휴일, 대형행사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항공사진 제작

임실군이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관촌면 방현, 방수지구를 대상으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정사영상)을 제작·완료했다. 이번에 제작된 항공사진은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실 경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 제작은 항공측량을 통해 현황 측량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등 토지에 대한 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인문학 강연·탐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4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민과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과 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은 인문 분야에 대한 관심 증진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과 지역의 인문 자원탐방을 결합한 인문 프로그램을 국민의 생활반경과 가까운 문화기반시설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한국 근현대 문화와 미술의 역사로 운영한다. 또한 한국의 원로 화가 오승우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무안군오승우미술관 탐방도

추진한다.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 근현대 문화사 강의(6회)를 하고 7월 17일에는 무안군오승우미술관을 탐방하며, 7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 강의 후 9월 4일 후속모임에서 참가자들과 한국의 문학과 미술 작품을 매개로 우리 역사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남원시 공공도서관 홈페이지(www.namwon.go.kr/lib)나 전화로 접수(063-620-5297)하면 된다.

임지남 도서관 운영팀장은 "한국 근현대 일제강점기와 독립을 거친 격동의 시기에 한국인이 창조한 문화와 미술의 역사를 다룬 강의와 탐방으로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문학적 식견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